AI 뉴스와 용어
월·수·금 오전 7시

METAL
First, AI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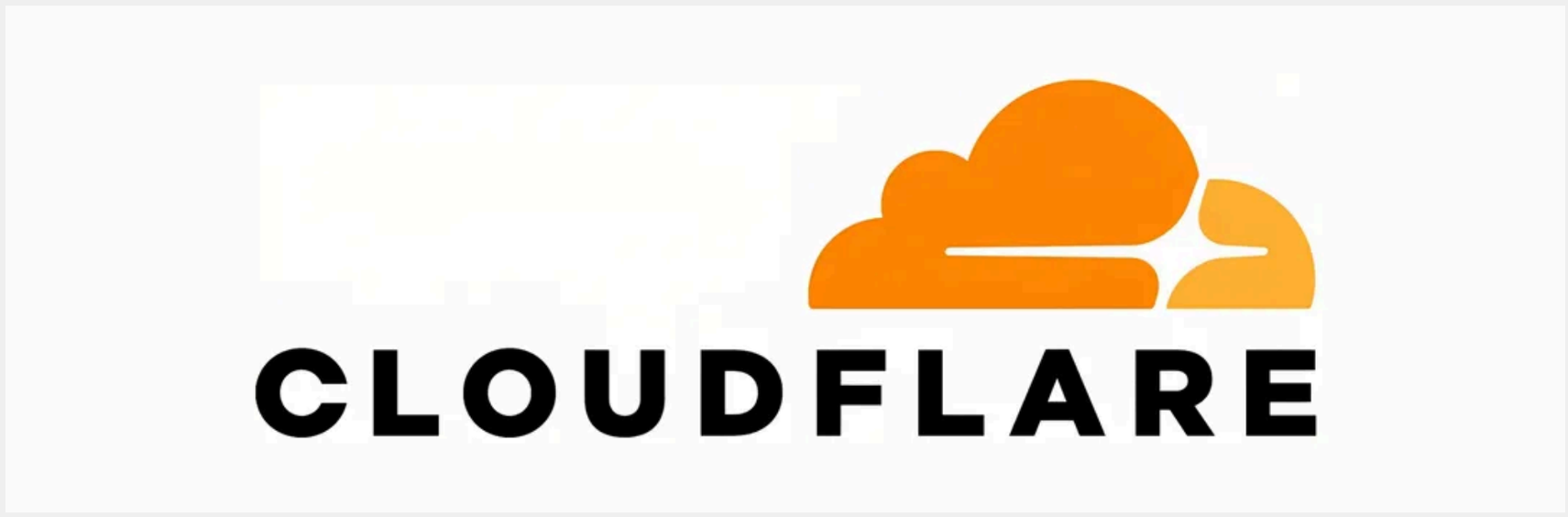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
metallab.ai

제 39 호 |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 오늘의 AI

AI

클라우드플레어, 개발자를 위한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베이슨' 출시

전용 서버 구축·관리 없이 대규모 데이터 수집·저장·분석 지원…개방형 표준 기반으로 벤더 종속과 클라우드 간 데이터 전송 비용 부담 낮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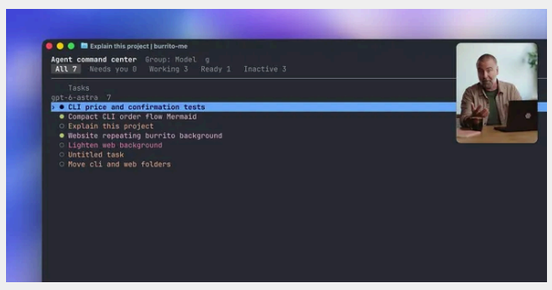


AI · 클라우드플레어, 개발자를 위한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베이슨' 출시

2026년 10월 6일 – 선도적인 커넥티비티 클라우드 기업인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는 개발자와 기업이 자체 데이터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플랫폼 '클라우드플레어 베이슨(Cloudflare Basin)'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베이슨은 개방형 데이터 테이블 포맷인 아파치 아이스버그(Apache Iceberg)와 클라우드플레어 R2(Cloudflare R2)를 기반으로, 기업이 기존에 사용하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분석 데이터를 수집·저장·분류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개방형 서버리스 환경을 제공한다.

그동안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축하려면 전담 데이터 엔지니어링 인력과 상당한 인프라 비용이 필요했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수요에 맞춰 전용 서버를 미리 구축하고,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별도로 연동해야 했으며, 클라우드 간에 데이터를 이동할 때마다 추가 비용도 발생했다.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도 제한적이었다.



오픈AI, Codex 새 기능 시연 영상 공개

베이슨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데이터는 호환 가능한 모든 도구에서 직접 읽을 수 있는 개방형 업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수초 내에 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조회할 수 있다.

데이터 전송 비용 부담 해소: 서로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 또는 리전의 도구를 활용해 데이터를 조회하더라도 별도의 데이터 전송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픈소스 AI 코딩 에이전트 오픈코드(OpenCode)를 개발한 어노말리(Anomaly)의 공동창업자 댁스 라드(Dax Raad)는 "회사의 전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베이슨 파이프라인(Basin Pipelines), 베이슨 카탈로그(Basin Catalog), 베이슨 SQL(Basin SQL)로 이전했다"며 "기존의 복잡한 아마존웹서비스(AWS) S3와 아테나(Athena) 환경을 보다 간결한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대체했으며, 모든 이벤트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데이터 제품 플랫폼 기업 밥슬레드(Bobsled)의 플랫폼 총괄 줄리엔 그로벨라르(Julien Grobbelaar)는 "밥슬레드는AI 활용에 적합한 데이터를 구축해 파트너, 공급업체 및 고객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제품 플랫폼"이라며 "베이슨을 활용하면 모든 주요 데이터 및 AI 플랫폼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제품을 구축할 수 있다. 실제 운영 환경에 필요한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송신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훨씬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클라우드플레어 베이슨은 현재 정식 출시(GA)됐다. 개발자는 클라우드플레어 베이슨 개발자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별 탭과 요약 차트를 갖춘 3분기 예산 대비 실적 보고서를 요청하면 예산을 넘긴 항목까지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슬라이드에서는 덱의 레이아웃과 테마로 새 슬라이드를 만들고, 겹치거나 화면 밖으로 나간 요소와 읽기 어려운 글자를 스스로 점검해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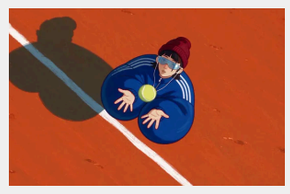
사이드바는 사용자가 클로드에서 쓰던 모델과 커넥터, 스킬을 그대로 가져온다. 고객용 분기 사업 리뷰(QBR) 덱을 요청하면 세일즈포스에서 고객 이력을, 구글 드라이브 커넥터로 최근 통화 메모를 끌어오는 식이다. 그 QBR 형식을 스킬로 저장해 두면 팀이 다음 덱을 같은 형식과 순서로 만들 수 있다. 엔터프라이즈 요금제에서는 컴플라이언스 API와 고객 관리 암호화 키(CMEK), 오픈텔레메트리 감사 기록 내보내기가 이 부가기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메탈이 확인한 앤스로픽 도움말 문서에 따르면 클로드가 구글에 요청하는 권한은 두 가지뿐이다. 문서 안에 사이드바를 띄우는 권한과, 부가기능이 설치된 문서를 보고 관리하는 권한이다. 드라이브와 지메일, 캘린더, 연락처 접근이나 파일에서 외부로 네트워크 요청을 보내는 권한은 요청하지 않는다. 도움말 문서는 "구글이 이를 강제하며 부가기능은 다른 파일을 열 수 없다"고 설명했다. 클로드의 편집은 사용자 이름으로 버전 기록에 남고, 파일 공유나 접근 권한 부여, 소유권 변경, 메뉴와 예약 자동화 생성은 사용자가 요청해도 거절한다.

문서 속에 숨은 지시도 다룬다. 남이 만든 파일에는 흰 글씨나 아주 작은 글꼴로 적힌 지시가 들어 있을 수 있다. 앤스로픽은 클로드가 문서 내용을 명령이 아니라 데이터로 다루고, 숨은 텍스트를 찾으면 표시하며, 파일을 공유하거나 링크를 가져오거나 누군가에게 연락하라는 문서 속 지시를

오늘 지면

1 AI 클라우드플레어, 개발자를 위한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베이슨' 출시
2 AI 구글 리서치, 지리공간 AI 공중보건 사례 공개
3 AI 구글 리서치, AI 에이전트 프라이버시 보고서 공개
4 AI 앤스로픽, 클로드 스타트업 프로그램 확대
5 AI 앤스로픽, 구글 워크스페이스용 클로드 공개
6 AI 오픈AI, Codex 새 기능 시연 영상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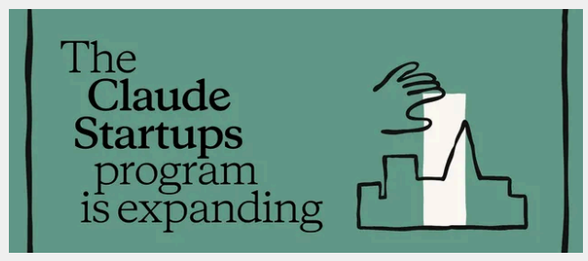
힉스필드, 캐릭터 일관성 제작 가이드 공개



놀라 헬스, 유타서 AI 여드름 신규 처방 시범

이 지면은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아침 구독자 메일함으로 나간 레터를 신문 판형으로 다시 조판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metallab.ai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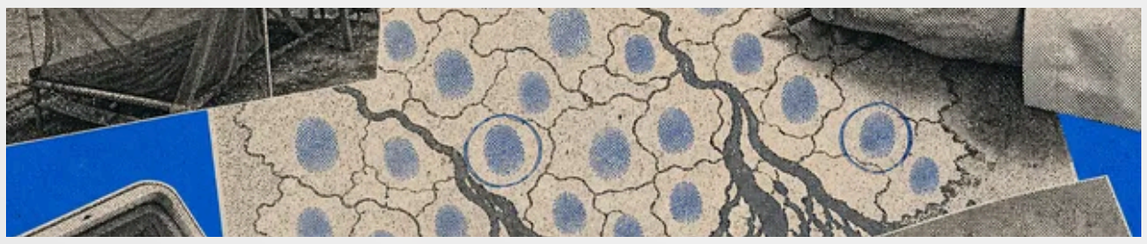
앤스로픽, 클로드 스타트업 프로그램 확대

AI 기업 앤스로픽이 클로드 기반으로 회사를 세우는 창업자를 위한 클로드 스타트업 프로그램(Claude Startups)을 더 많은 스타트업에 열었다. 회사는 10월 6일 확대를 발표하며 승인된 회원에게 클로드 팀(Claude Team) 요금제 1년 무료 이용권과 API 크레딧 1000달러, 파트너사 도구 할인, 앤스로픽 응용 AI(Applied AI) 팀과의 오피스 아워를 준다고 밝혔다. 회사가 계산한 클로드 제품·크레딧 혜택은 최대 7000

▶ 2면에 계속

AI

구글 리서치, 지리공간 AI 공중보건 사례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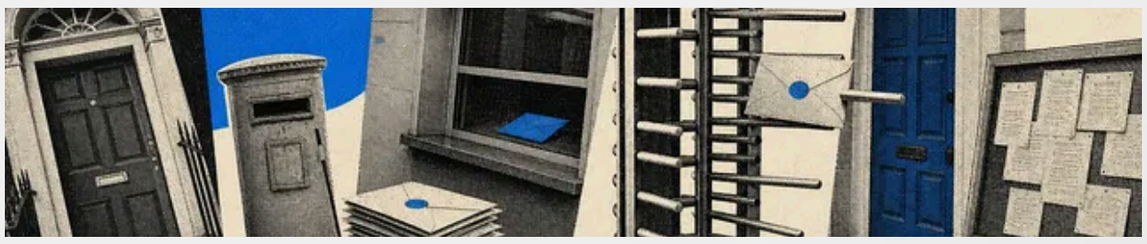
구글 리서치가 6일 구글 어스 AI의 인구 동태 파운데이션 모델(PDFM)을 공중보건 현장에 적용한 사례 5건의 결과를 공개했다. 홍역 백신 접종률, 심혈관질환 사망, 뎅기열, 산후우울증, 콜레라 등 다섯 과제에서 이 모델이 만든 위치 임베딩을 기존 역학 모델에 꽂아 넣자 성능이 같거나 나아졌다는 내용이다. 평가는 마운트사이나이 보건 시스템과 보스턴 아동병원, 뉴욕대 그로스먼 의대, 옥스퍼드대와 몬테레이공대, 워싱턴대,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지역사무소(WHO AFRO)가 각자 맡았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콩고민주공화국 네 나라가 무대다.

PDFM은 지역마다 하나씩 붙는 숫자 묶음, 이른바 장소의 지문을 만든다. 익명으로 모은 검색 추세, 약국과 병원과 공원

▶ 2면에 계속

AI

구글 리서치, AI 에이전트 프라이버시 보고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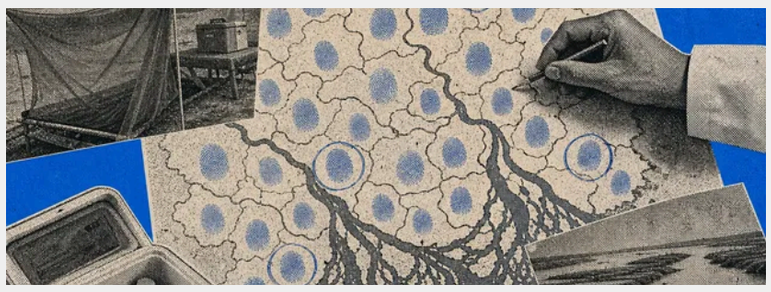
구글 리서치가 AI 에이전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를 정리한 워크숍 보고서를 10월 5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에이전트가 사람의 데이터를 쓰고 행동을 대신하려면 무엇이 허락된 일인지를 맥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그 판단을 시스템과 모델, 사용자, 생태계 각 층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연구 과제 51개로 나눠 적었다. 메탈이 확인한 보고서 원문 PDF는 116쪽이며, 표지에는 구글과 코넬 테크, 카네기멜런대, UC 버클리 등 25개 소속의 공동 저자 65명이 이름을 올렸다.

출발점은 2025년 11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구글 맥락 기반 에이전트 프라이버시·보안(CAPS) 워크숍이다. 보고서는 그 자리에 30명이 넘는 학계·업계 인사가 모였고 이후 후속

◀ 1면에서 계속

AI

구글 리서치, 지리공간 AI 공중보건 사례 공개



1 구글 리서치가 6일 구글 어스 AI의 인구 동태 파운데이션 모델(PDFM)을 공중보건 과제 5건에 적용한 결과를 41쪽 논문과 함께 공개했다.

2 미국·캐나다 국경의 MMR 접종률 설명력은 16%에서 22%로 올랐고, 콩고민주공화국 콜레라 8주 앞 예측의 적중은 18% 늘었다.

3 산후우울증 예측에서는 개인의 소득·보험 자료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경계도 논문에 함께 적혔다.

국경을 넘는 효과가 가장 먼저 드러났다. 캐나다 국경에서 150킬로미터 안에 있는 미국 146개 카운티는 국내 자료만 쓰는 모델로는 백신 접종률을 맞히기 어려웠다. 마운트사이나이와 보스턴 아동병원 연구진은 미국 카운티 임베딩에 캐나다 우편구역 임베딩을 더해 국경 너머의 이동과 정보 흐름을 반영했다. 그러자 홍역·볼거리·풍진(MMR) 접종률 변동을 설명하는 비율이 16%에서 22%로 36% 늘었고, 국경 주민 470만 명의 접종률 추정치가 최소 3%포인트 바뀌었다. 논문에 따르면 이 국경 지대 카운티에는 약 1860만 명이 살고, 미국 유치원생 MMR 접종률은 92.7%까지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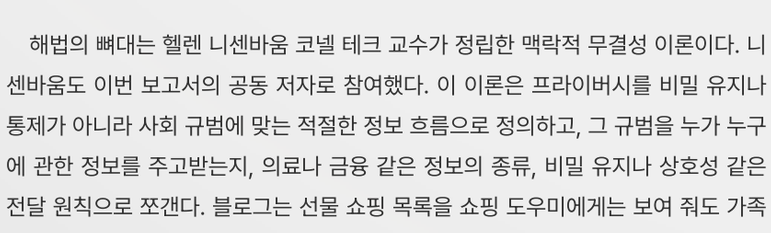
심혈관질환 분석은 통계 공백을 겨냥했다. 미국에서 심혈관질환으로 한 해 91만 6000명 넘게 숨지지만, 카운티 단위 공식 사망 통계는 1~2년, 인구조사 기반 공변량은 2~3년 늦게 나온다. 뉴욕대 그로스먼 의대 연구진은 미국 본토 3091개 카운티에서 2023년 사망자 수를 PDFM으로 추정했다. 카운티당 평균 오차는 18.7명으로 미국 지역사회조사(ACS) 자료를 쓴 모델의 19.1명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고, 큰 오차를 키우는 지표(RMSE)는 57.7에서 46.0으로 20% 줄었다. ACS가 5년치 조사를 묶어 최대 1년 뒤에 나오는 반면 이번에 쓴 임베딩은 한 달치 자료로 만들었다. PDFM은 17개국에서 쓸 수 있다.

감염병 예측은 구글의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 TimesFM 2.0과 짝을 이뤘다. 옥스퍼드대와 몬테레이공대 연구진은 2020~2025년 멕시코 약 2450개 기초자치단체의 뎅기열 환자 수를 예측했다. 한 달 앞 예측에서 효과가 가장 컸고, 전파가 활발한 지역의 최대 72%에서 정확도가 올랐다. 오차가 줄어든 총량은 늘어난 총량의 3.4배였다.

◀ 1면에서 계속

AI

구글 리서치, AI 에이전트 프라이버시 보고서 공개



1 구글 리서치가 10월 5일 공동 저자 65명이 참여한 116쪽 분량의 AI 에이전트 프라이버시·보안 워크숍 보고서를 공개했다.

2 보고서는 맥락적 무결성 이론을 에이전트 행동 전반으로 넓힌 맥락적 보안 개념을 세우고, 행동을 실시간 정책으로 거르는 맥락 정책 엔진을 제안했다.

3 시스템·모델·사용자·평가·다중 에이전트·거버넌스에 걸쳐 미해결 과제 51개를 꼽고, 표준화된 에이전트 짐 평가 환경을 요구했다.

두 사람이 짚은 핵심 긴장은 쓸모와 위험이 같은 곳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이들은 "에이전트가 유용하려면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고 폭넓은 맥락에서 결과가 따르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할 수도 있다"고 썼다. 보고서는 에이전트가 기존 소프트웨어와 세 가지 면에서 다르다고 정리했다. 자연어와 이미지처럼 구조가 없는 입력을 받아 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조작에 노출되고, 계획을 그때그때 생성해 실행 경로가 확률적으로 바뀌며, 긴 작업을 다른 에이전트에게 다시 맡기면서 사용자의 감독이 약해진다. 보고서는 승인 창이 끝없이 뜨면 사람이 내용을 보지 않고 누르게 되는 확인 피로도 그 대가로 꼽았다.

해법의 뼈대는 헬렌 니센바움 코넬 테크 교수가 정립한 맥락적 무결성 이론이다. 니센바움도 이번 보고서의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이 이론은 프라이버시를 비밀 유지나 통제가 아니라 사회 규범에 맞는 적절한 정보 흐름으로 정의하고, 그 규범을 누가 누구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지, 의료나 금융 같은 정보의 종류, 비밀 유지나 상호성 같은 전달 원칙으로 쪼갠다. 블로그는 선물 쇼핑 목록을 쇼핑 도우미에게는 보여 줘도 가족과 친구에게는 숨기고 싶은 상황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이 틀을 정보 공유에서 에이전트의 행동 전반으로 넓혀 맥락적 보안이라는 개념을 새로 세웠다.

연구진이 지금을 기회로 보는 이유는 언어 모델 자체에 있다. 블로그에 따르면 맥락적 무결성 이론이 나온 뒤 처음으로 언어 모델이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길을 열었다. 학회 출장을 준비하면서 내 데이터를 지켜 달라는 요청에는 항공권 예약과 비자 신청, 주최 측 연락에서 각각 어떤 정보를 넘겨도 되는지가 숨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높은 수준의 규범과 낮은 수준의 시스템 권한 사이에 의미의 간극이 있었다. 사람이 권한을 하나하나 지정하거나 전문가가 정책을 미리 써 두는 방식으로는 여러 에이전트가 오래 걸리는 일을 동시에 하는 환경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다.

◀ 1면에서 계속

AI

앤스로픽, 클로드 스타트업 프로그램 확대



1 앤스로픽이 10월 6일 클로드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설립 5년 이내이거나 최근 2년 안에 투자받은 스타트업 전반으로 확대했다.

2 승인 회원은 클로드 팀 1년 무료(최대 5석)와 API 크레딧 1000달러를 받고, 클로드 스타트업 스택으로 최대 4만5000달러 상당의 파트너 혜택을 쓴다.

3 크레딧은 6개월 뒤 만료되고 클로드 콘솔의 자체 API에서만 쓸 수 있으며, 파트너 벤처캐피털 투자사는 최대 10만 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새로 붙은 것은 클로드 스타트업 스택(Claude Startup Stack)이다. 영업과 디자인, 데이터, 회의, 엔지니어링 도구를 만드는 회사들이 최대 4만5000달러 상당의 할인과 크레딧을 내놓았다. 메탈이 확인한 프로그램 페이지에는 클릭하우스 클라우드 크레딧 5000달러, 일레븐랩스 12개월 무료와 3300만 자, 헥스 엔터프라이즈 요금제 6개월 무료, 그래놀라 비즈니스 요금제 3개월 무료(최대 10석), 감마 프로 연간 요금제 첫해 25% 할인 같은 혜택이 올라 있다. 앤스로픽은 이 혜택을 독립된 제3자 기업이 제공하며, 최대치는 2026년 9월 파트너 정가 기준이고 모든 혜택을 함께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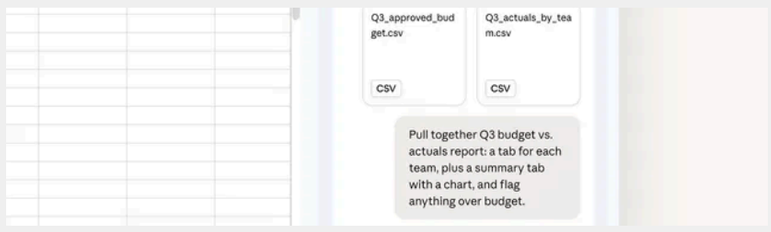
돈 밖의 지원도 묶었다. 회원은 응용 AI 팀과 45분짜리 화상 오피스 아워를 격주로 예약할 수 있다. 클로드 사용자들이 커넥터와 플러그인을 찾는 클로드 마켓플레이스에 자사 제품을 올리도록 등록과 심사 제출을 돕는다. 파운더 하우스와 해커톤, 밋업 같은 행사와 스타트업 뉴스레터도 열어 준다. 앤스로픽은 SF 테크위크 기간인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클로드 파운더 하우스를 연다. 메탈은 앤스로픽이 파운더 하우스를 두 도시에서 연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턱은 낮게 잡았다. 자기 자본으로 운영하는 스타트업과 프리시드, 벤처 투자를 받은 회사가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신청에는 클로드 콘솔 계정과 회사 웹사이트 도메인과 같은 회사 이메일, 만드는 서비스에 대한 짧은 설명이 필요하다. 회사는 대부분의 신청이 몇 분 안에 결정되고 나머지는 수동 검토로 넘어가 영업일 기준 2~3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앤스로픽 파트너 네트워크에 속한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은 회사는 그 투자사를 거쳐 최대 10만 달러의 추가 API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AI

앤스로픽, 구글 워크스페이스용 클로드 공개

앤스로픽이 구글 문서와 시트, 슬라이드 옆 사이드바에서 파일을 읽고 그 자리에서 고치는 클로드 부가기능을 모든 유료 요금제에 공개 베타로 내놨다. 편집마다 사용자 승인을 받는 모드가 기본값이고, 구글에 요청하는 권한은 열린 파일 하나로 좁혔다.



1 앤스로픽이 10월 6일 클로드 포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모든 유료 클로드 요금제에 공개 베타로 내놨다.

2 클로드는 문서·시트·슬라이드 옆 사이드바에서 열린 파일을 읽고 고치며, 기본 모드에서는 편집마다 사용자 승인을 받는다.

3 구글에 요청하는 권한은 두 가지뿐이고 제3자 추론 경로와 데이터 무보존 배포는 이번 베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AI 기업 앤스로픽이 자사 AI 모델 클로드를 구글 문서와 시트, 슬라이드 안으로 들여보냈다. 10월 6일 공개한 클로드 포 구글 워크스페이스(Claude for Google Workspace)는 모든 유료 클로드 요금제에서 공개 베타로 쓸 수 있는 부가기능이다. 열어 둔 파일 옆 사이드바에서 클로드가 문서를 읽고, 사용자가 고른 텍스트와 셀, 슬라이드를 확인한 뒤 파일을 그 자리에서 고친다. 반대 방향의 길도 함께 열렸다. 앤스로픽은 새 구글 문서·시트·슬라이드 커넥터(베타)를 내놓아 클로드 대화창에서 구글 파일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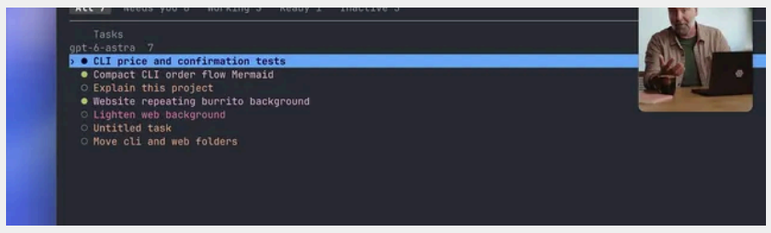
이번 출시의 축은 편집 권한을 누가 쥐느냐다. 기본값인 '편집 전 확인(Ask before edits)' 모드에서는 변경마다 요약이 담긴 승인 카드가 뜨고, 클로드는 사용자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린다. '모든 편집 수락(Accept all edits)' 모드로 바꾸면 클로드가 작업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처리한다. 앤스로픽은 발표문에서 "클로드가 스스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지는 사용자가 정한다"라고 밝혔다. 이 모드에서도 링크와 외부 이미지, 웹 주소, 파일 접근 권한을 건드리는 작업은 다시 승인을 받는다.

구글 문서에서는 문장 하나를 고치거나 제목 서식을 바꿀 때 주변 서식을 건드리지 않는다. 큰 폭의 재작성은 사이드바에 제안 카드로 올라오고, 카드마다 바뀔 대목이 강조돼 적용할지 버릴지를 고를 수 있다. 앤스로픽이 든 예는 제품 요구사항 문서의 핵심 요약을 줄이고 다음 단계 목록을 표로 바꾸는 두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하는 장면이다.

AI

오픈AI, Codex 새 기능 시연 영상 공개

오픈AI가 음성으로 작업을 맡기고 여러 프로젝트의 에이전트를 한 화면에서 관리하는 터미널용 Codex 시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기능은 9월 22일부터 열흘 사이 다섯 차례 버전 업데이트로 배포된 것들이다.



1 오픈AI가 10월 5일(미국 시간) 공식 개발자 X 계정에 터미널용 Codex의 음성 작업 지시, 에이전트 관리 화면, 워크트리 분기를 보여 주는 시연 영상을 공개했다.

2 영상 속 전체 화면 인터페이스, 음성 대화, /usage 대시보드, 머메이드·수식 렌더링은 9월 22일 0.156.0부터 10월 1일 0.160.0까지 다섯 차례 버전 업데이트로 배포됐다.

3 휴대폰 원격 제어로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작업을 확인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어, 명령줄 도구가 여러 에이전트를 지휘하는 작업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오픈AI가 터미널용 코딩 에이전트 Codex CLI의 새 기능을 한데 모은 시연 영상을 10월 5일(미국 시간) 공식 개발자 X 계정에 공개했다. 영상은 음성으로 작업을 시작하고, 여러 프로젝트에 흩어진 에이전트를 한 화면에서 관리하고, 같은 대화를 별도 워크트리로 갈라 다른 방향을 시험하는 과정을 차례로 보여 준다. 오픈AI 개발자 계정은 게시물에서 "터미널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번 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게시물은 공개 다섯 시간여 만에 조회 약 4만 9,700회를 기록했다.

영상에 나온 기능은 대부분 지난 2주 사이 차례로 배포된 것이다. 메탈이 확인한 Codex 공식 변경 기록에 따르면 오픈AI는 9월 22일 0.156.0부터 10월 1일 0.160.0까지 열흘 사이 CLI 마이너 버전을 다섯 차례 올렸고, 10월 5일에는 윈도 원격 MCP 서버의 환경 변수 문제를 고친 0.160.1을 냈다. 출발점인 0.156.0 한 판에만 525건의 변경 내역이 실렸다. 이번 영상은 새 출시라기보다 그동안 쪼개서 나온 기능을 하나의 작업 흐름으로 엮어 보여 주는 정리판에 가깝다.

시연은 가벼운 소재로 시작한다. 진행을 맡은 크레이그 데니스 오픈AI 개발자 경험(Developer Experience) 담당은 늘 먹는 부리토를 명령 한 줄로 주문하는 CLI를 만들었다며, 주변에서 다들 쓰고 싶어 해 설치용 웹페이지를 만들겠다고 말한다. 그는 영상 첫머리에서 "여러분은 Codex가 빠르고 방해되지 않기를 원한다"며 사용자가 좋아하는 곳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기능들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에이티브

힉스필드, 캐릭터 일관성 제작 가이드 공개

힉스필드가 AI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캐릭터와 화풍이 장면마다 흔들리는 문제를 막는 여섯 단계 제작 가이드를 내놨다. 「릭 앤 모티」 애니메이션 감독 출신 휴고 블렌들은 같은 원칙으로 하루 이틀에 한 편씩 시리즈를 만든다.



1 힉스필드가 5일 기준 이미지를 먼저 확정하고 모든 생성에서 재사용하라는 AI 애니메이션 시리즈 캐릭터 일관성 가이드를 공개했다.

2 소울 ID는 20장 넘는 사진으로 캐릭터를 학습하고, 시네마 스튜디오 4.0은 클립당 최대 30초·기준 이미지 최대 50개로 장면을 만든다.

3 블렌들은 이 방식으로 약 4시간 만에 1분 20초 분량의 에피소드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힉스필드가 AI로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들 때 캐릭터와 화풍이 장면마다 흔들리는 문제를 막는 제작 가이드를 5일 블로그에 공개했다. 핵심은 영상을 뽑기 전에 캐릭터와 화풍, 장소, 소품의 기준 이미지를 먼저 확정하고 모든 생성에서 그 기준을 다시 불러 쓰라는 것이다. 회사는 이 준비를 건너뛰면 시리즈가 길어질수록 시각적 표류가 생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공개된 실무자 인터뷰에서는 애니메이터 출신 창작자가 이 원칙으로 하루 이틀에 한 편씩 시리즈를 내는 과정이 함께 나왔다.

표류가 생기는 이유는 생성이 장면마다 따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힉스필드에 따르면 같은 정체성과 기준을 넘겨주지 않으면 모델은 캐릭터 설명을 매번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그 작은 차이가 시리즈 전체에서 쌓인다. 가이드는 문제를 다섯 가지로 나눴다. 에피소드마다 얼굴이나 비율이 바뀌는 경우, 화풍이 밋밋한 기본 그림체로 흘러가는 경우, 이야기상 이유 없이 옷이나 소품이 바뀌는 경우, 같은 장소가 회차마다 달라 보이는 경우, 장면마다 색 보정과 조명이 달라지는 경우다.

처방은 도구 네 개로 짜였다. 35개 넘는 모델과 도구를 한 작업 공간에 묶은 힉스필드에서 소울 ID는 캐릭터를 붙잡고, 20장 넘는 기준 사진으로 몇 분 안에 학습한다. 자체 이미지 모델 소울 2.0은 최대 2K 이미지를 만들고 20개 넘는 프리셋을 갖췄으며, 무드보드로 화풍을, 소울 HEX로 색 팔레트를 고정한다. 팝콘은 대본이나 장면 목록을